

②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 부실한 점검



③ 6월 신안 여객선 선장 운항중 도박, 안전 '나몰라라'



④ 7월 광주 평화맨션 '쿵', 주민 긴급대피



사회 곳곳 '생활 속 세월호'... 6개월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

① 4월 세월호 참사, '잊지 않겠습니다' 팽목항 노란 리본



불안한 광주·전남
바꾸자 안전지대로

<1>구멍뚫린 안전... 목숨 내놓고 다닌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 294명의 목숨을 앗아간 뒤로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진하게 쓰여진 노란 리본이 곳곳에 내걸렸다. 그날의 참사를 잊지 말고 다시는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각오이기도 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다. 나아졌는가. 원망하고 분노했을 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비상 경고를 켜고 있는 우리 사회 곳곳의 세월호를 '살마, 괜찮겠지'하는 고집적인 안일함이 불안하게 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급기야 임계점을 넘어서 터져나오는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무책임·무관심·허점 등도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걸까. 그날의 기억은 벌써 희미해졌다. 광주일보는 '불안한 광주전남, 바꾸자 안전지대로'를 게재한다.

요양병원 화재·유람선 좌초...

무책임·무관심·불감증 여전

전남지역 화재·사망자 15% ↑

보여주기식 안전 이젠 끝내자

잇단 사고에 가슴이 '철렁'

#. 지난 5월 28일, 장성 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단 6분 만에 입원중인 중증 노인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21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300명이 넘는 중증 환자를 관리·보호할 근무 인력이 부족한데다, 정부의 허술한 안전 점검과 미흡한 소방 규정 등이 더해지면서 참사로 이어졌다.

#. 지난 6월 14일, 신안 비공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상, 선장은 운항 중 승선객과 뒤섞여 도박을 했고 여객선에 실린 화물차·승용차는 아무런 고박 장치도 없이 갑판에 방치되다시피했다. 출항 전 안전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 7월 24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이 '쿵' 소리와 함께 흔들려 주민 168명이 긴급 대피했다. 아파트를 떠날치고 있던 1m 두께의 지하 콘크리트 기둥이 짓눌리면서 붕괴 위험 상태에 놓였다. 1981년 준공된 건물이지만 '안전'은 비용 부담으로 뒷전으로 밀렸다.

#. 8월 18일,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남서쪽 해상, 여수선적 120t급 쌍끌이 어선 금창호와 4060t급 유조선 유스텔라호가 충돌했다. 진도 VTS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충돌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고 100여척의 선박이 몰려있는데도 선박 관리·통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 9월 30일, 흥도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110명이 탄 유람선이 좌초했다가 승무원, 어민들의 적극적 구조 활동으로 탑승객 전

원이 구조됐다. 연간 수십만명이 찾는 관광지임에도 해경은 순찰 경비정 하나 없이 해상 안전을 주민들에게만 맡겨놓았고 출항 전 점검은 여전히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한 사고였다.

"우리 사회 안전하다" 16% 뿐

세월호 침몰 참사 뒤에도 사회 슬한 분야에 '안전 불감증'이 도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들이다.

'4월 16일 이전 대한민국과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다. '살마, 괜찮을거야'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밀려 '안전'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올만하다. 안전 의식을 강조해야할 기관·관리들이 '좋은 게 좋은거야'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하는 상황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정부가 내놓은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 5월 16%에 불과했다. 바뀌지 않은 사회 분위기는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무조정실 안전점검 종합결과(6.10)'에 따르면 자체·합동 점검 뒤 지속적인 안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부처별로 실시했던 자체점검 대상 56개소를 추가로 확인, 형식적 점검 등의 사유로 총 430건이 또다시 지적됐다. 보여주기식 점검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광주·전남도 다르지 않다.

7월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2480건) 중 55.6%가 부주의에서 비롯돼 가장 많았다. 지난 2012년 부주의로 인한 화재(51%)보다 높아진 것으로, 재산피해액도 157억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 전남지역 화재 발생 건수는 전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 15.1% 늘었고 사망자도 14.8% 증가했다.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실정로, 통계로만 보면 기본, 원칙, 상식에 충실해져 가는 변화를 알아채기란 쉽지 않다.

말 뿐인 대책도 그대로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전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지난해 광주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09년 2150건 ▲2010년 2447건 ▲2011년 2629건 ▲2012년 3441건 ▲2013년 3417건으로 4년 새 학생 1000명당 안전사고 증가율도 무려 74.9%에 이른다.

전남도 2009년 1540건에서 2013년 1940건으로 늘어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치유되는 모습은 수척로 파악하기 힘든 형편이다.

1953년 부산 대포대포 창경호 사고(229명 사망) 이후 남양호(1970년·323명), 서해훼리호(1993년·292명 사망), 세월호(294명)까지 20년을 주기로 대형 해상 사고가 지도·감독 소홀, 부실한 안전 점검 등으로 반복되는데도 그때 뿐이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최현배·김진수기자 choi@kwangju.co.kr

<이 기획 시리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50년간 국내 대형 재난·사고 현황 (사망자 10명 이상)

연대	자연 재해	대형 화재	육상 교통사고	해상 사고	항공기 사고	붕괴·폭발
1960년대	18	2	10	2	1	1
1970년대	49	7	20	5	0	7
1980년대	57	6	5	2	4	4
1990년대	21	10	3	3	2	6
2000년대	12	7	4	1	1	1
2010년대	2	1	0	2	0	0
합계(건)	159	33	42	15	8	19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특이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MA INSTITUTE OF BUILDING ARCHITECTS
우수건축사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타입시공 /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 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